

제주SK FC, 김천 원정 ‘무승부’

5일 16라운드 1-1… 승점 19로 ‘리그 8위’ 유지
포르투갈 출신 수비수 토비아스 K리그 데뷔골
12일 대전·18일 포항·21일 강원과 홈경기 예정

2026 북중미 월드컵 휴식기를 마친 제주SK FC가 후반기 첫 경기에서 토비아스의 데뷔골에 힘입어 승점 1점을 확보했다.

제주SK는 5일 김천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진 김천 상무와의 ‘하나은행 K리그1 2026’ 1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후반 28분 0-1로 뒤진 상황에서 토비아스가 K리그1 데뷔골을 터트리며 팀을 패배의 위기에서 구해냈다. 이날 경기는 세르지우 코스타 감독의 퇴장 징계로 벤치에 앉지 못하고 정조국 수석코치가 대신 지휘봉을 잡았다.

제주SK는 4-4-2 포메이션을 내세웠다. 골문은 김동준이 지켰고, 백포 라인인 김륜성-세레스틴-토비아스-권기민, 허리는 신상은-임창우-오재혁-김준하, 전방은 남태희-네가바가 담당했다.

전반 김천의 공세를 막아낸 제주SK에 전반 30분 변수가 발생했다. 제주 네게바와 상대 변준수의 충돌 과정에서 비디오 판독(VAR) 끝에 네게바가 난폭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다이렉트 퇴장을 당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미 카

드를 받은 변준수도 원인 제공을 했으며 옐로카드를 받아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했다.

제주SK는 후반 9분 남태희와 신상을을 빼고 박창준과 김신진을 기용하며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했다. 하지만 제주SK는 후반 24분 불처리 미숙으로 박철우에게 선제골을 내주고 말았다.

반격에 나선 제주SK는 후반 28분 오재혁이 올린 크로스를 토비아스가 타점 높은 헤더로 마무리하며

스코어를 동률로 맞췄다. 포르투갈 출신으로 잉글랜드 노팅엄포리스트에서 활약했던 중앙수비수 토비아스의 K리그1 데뷔골이었다.

기세가 오른 제주SK는 후반 추가시간 최병욱의 컷백을 김신진이 벼락같은 슈팅으로 마무리했지만 상대 골키퍼의 선방에 가로막히면서 이날 경기는 1-1 무승부로 막을 내렸다.

이로써 제주는 5승 4무 7패, 승점 19로 리그 8위를 유지했다. 제주SK는 오는 12일 대전을 홈으로 불러들여 17라운드 경기를 갖는다. 이어 18일 포항, 21일 강원과 3라운드 연속 홈경기에서 승수 쌓기에 위력적이지



김천과 원정경기에서 동점골을 넣은 제주SK 토비아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13년 집권’ 정몽규 축구협회장 물러났다 어제 사임서 제출…“모든 과오 오롯이 내 책임”

대한축구협회를 이끌어온 정몽규 회장이 13년 5개월여 만에 수장직에서 물러났다.

축구협회는 정 회장이 6일 오전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서 부회장 및 이사회가 참석한 가운데 마지막 임원 회의를 주재한 뒤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로써 2013년 1월 제52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4선을 지낸 정 회장은 협회장직을 내려놓게 됐다.

당초 정 회장은 2026 북중미 월

드컵 개막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하며 대회 폐막 이후 사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축구협회를 둘러싼 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조직을 정상화하기 위해 사퇴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풀이된다.

정 회장은 사퇴 인사말을 통해 “모든 영광과 성과는 선수들과 팬 여러분 덕분이며, 모든 부족함과 과오는 오롯이 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회장직에서 물

러나, 한 명의 열성적인 축구 팬으로 돌아가 한국 축구를 응원하겠다. 대한민국 축구는 언제나 그랬듯, 수많은 시련을 넘어 다시 한번 높이 비상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재임 기간 천안 코리아풋볼파크 건립, 디비전 시스템 구축, 파트너사 및 중계사와의 장기 계약을 통한 협회 재정 안정성 강화,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절차적 논란, 승부조작 축구인 사면 시도 등으로 거센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나를 따르라”… 홀란의 골 세리머니 6일(한국시간) 미국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FIFA 월드컵 16강 브라질과 노르웨이의 경기에서 노르웨이 엘링 홀란(사진 맨 앞)이 두번째 골을 터뜨리며 동료들과 함께 골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우석, 드디어 MLB 마운드 밟는다

디트로이트 마이너→미네소타 이적… 2년 8개월 만 빅리그 승격

“그동안 묵묵히 응원해 준 분들에게 너무 감사”

꿈에 그리던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무대를 눈앞에 둔 고우석(28)이 원소속팀 LG 트윈스에 대한 미안함과 아내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고우석은 6일 국내 에이전트인 리코스포츠를 통해 소감을 전했다.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산하 마이너리그팀에서 뛰던 고우석은 현금 트레이드를 통해 미네소타 트윈스로 이적했다.

계약 조항에 따라 그는 미네소타 이적 직후 28인 MLB 로스터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미네소타 구단은 8일 홈구장 타깃필드에서 열리는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전에 맞춰 그를 로스터에 등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고우석은 2023년 11월 빅리그 도전을 선언한 지 약 2년 8개월 만에 꿈에 그리던 메이저리그 마운드에 설 기회를 얻게 됐다.

그가 경기에 출전하면 1994년 박찬호 이후 30번째 한국인 빅리거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고우석은 감격스러운 메이저리



미네소타 트윈스로 이적해 빅리그로 승격되는 고우석. 연합뉴스

그 승격 소감과 함께 그동안 묵묵히 자신을 응원해 준 이들을 향한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는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았는데 좋은 결과에 많은 응원과 기대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라며 운을 뗐다.

이어 험난했던 미국 생활 도중 손을 내밀어 줬던 친정팀을 향한 애뜻함과 미안함을 함께 털어냈다.

고우석은 “지난 5월 LG의 제안을 거절하고 매일 마음이 좋지 않았다”면서 “팀이 어렵고 힘든 시기

에 몰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팀을 외면한 것만 같아 마음 한편에 죄책감이 있었다. 다시 한번 LG 트윈스 팀과 팬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진심을 전했다.

기나긴 마이너리그 생활을 버티게 해준 이들에 대한 고마움도 잊지 않았다. 그는 “오늘의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비시즌에 많은 도움을 주신 LG 코치님들과 개인 코치, 제 캐치볼 파트너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가장 큰 공은 타지 생활을 함께 견뎌준 아내에게 돌렸다.

고우석은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가장 고맙고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며 “둘째를 임신한 채로 혼자서 아이를 돌보면서도 늘 괜찮다고 이야기해 주었는데, 이 행운이 저에게 찾아와 준 것은 모두 아내 덕분인 것 같다”고 애절한 마음을 표현했다.

고우석은 이어 “이제 다시 출발점에 서게 되었으니, 응원해주신 만큼 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굳은 각오를 다졌다. 연합뉴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안간국장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930 9:45 KBS 뉴스 제주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10 동행 (재)	6:10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하이라이트 7:00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하이라이트 8:00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16강 미국·벨기에 11:20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하이라이트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TV 전국시대 8:50 가족관계증명서 (재)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최고! 호기심 딱지 11:15 뽀빠뽀 좋아 좋아 스페셜 11:45 주니토니 이야기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15 JIBS 아침 뉴스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J방울 8:50 좋은아침 9:55 SBS 10 뉴스 10: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1:00 하트카드 (재)	8:20 지구 영웅 반개맨 9:20 자이언트 펭TV 9:40 서정호의 이웃집 백만장자 12:10 최후의 인류 13:25 EBS 평생학교 14:55 나의 두 번째 교과서 16:20 당동당 당동당 18:20 고향민국 19:45 극한직업
KCTV				
12:00 KBS 뉴스 12 13:00 KBS 네트워크 특선 우리 동네 14:00 KBS 뉴스 14:10 생로병사의 비밀 (재) 15:10 일어서 세계속으로 (재) 16:00 시사간전 17:00 KBS 뉴스 5 17:30 탐나는 제주	12:10 인간극장 스페셜 12:50 다류엔터티 3일 (재) 13: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 15:00 KBS 뉴스타임 15:15 월드 24 15:45 마카엔로니 3 (재) 16:00 TV 유치원 (재) 16:30 어린이 동물터비 (재) 17:00 아이즈먼 3 17:15 아스트로스테이션 17:30 스튜디오 K 스페셜	12:00 12 MBC 뉴스 12:25 오늘N 백세 로그인 (재) 13:20 가족관계증명서 (재) 13:55 2시 뉴스 외전 15:55 기분 좋은 날 (재) 16:55 5시 뉴스와 경제 17:10 일마를 부탁해 (재)	12:00 SBS 12 뉴스 12:45 아가씨어 13:00 말하는 물 (재) 14:00 뉴스브리핑 15:30 고향이 보인다 16:00 화합기행 17:00 JIBS 저녁 뉴스 17:10 건강한가요	9:00 KCTV 9시뉴스 9:30 힐글나침반 10:00 리얼귀농뉴스로 나는 농부다 11:30 로컬여행 오정해보고 12:30 또래별 13:00 KCTV 1시 뉴스 13:20 지금 이슈인 15:30 네트워크 전국발굴 16:00 공원에 반하다 17:20 소리원정대 19:30 우리동네 하어로 시즌1
제주CBS FM 93.3MHz 90.9MHz				
18:00 6시 내고향 19:00 KBS뉴스 7 제주 19:40 보물섬 20:10 굿 라이브 20:30 일일드라마 기분 우리 좋은 날 21:00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시사기획 창 22:50 KBS 뉴스라인W 23:30 영상앨범 산(재)	18:35 2TV 생생정보 19:50 일일드라마 붉은 진주 20:30 셀럽방사의 비밀 21:45 스모킹 건 22:45 스튜디오 K 23:55 KBS 재난방송센터 (재)	18:05 다류 M 19:05 가족관계증명서 19:40 MBC 뉴스데스크 21:00 최우수산 스페셜 22:20 PD수첩 23:20 100분토론	18:10 생방송 투데이 19:00 뉴스현타스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산골총각 영웅 22:40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	7:10 박성태의 뉴스쇼 9:00 그대 창가에 일렉스입니다 12:00 CBS 뉴스 14:05 이봉규의 어면가요 17:00 시사매거진 제주 17:30 박지환의 뉴스톡 530 18:00 박재홍의 한판승부 20:00 CBS 뉴스
TBN제주교통 FM 105.5MHz 105.9MHz				
7:00 출발! 제주대행진 9:00 스튜디오 1055 14:05 TBN 차차차 16:00 TBN 제주매거진 18:05 달리는 라디오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KBS 064)740-7331 / ☎ MBC 064)740-2432 / ☎ JIBS 064)740-7800 / ☎ KCTV 064)741-7723 / ☎ 제주CBS 064)748-7400 / ☎ TBN제주교통방송 064)717-8114				

오늘의 운세	7일	김종상 지단(組田) 작명역학 원장 경기도 평교실 교수(010-5233-6136)
	36년 아름다운 추억의 과거를 생각한다. 외롭다. 48년 다혈질 감정을 억제하고 아랫사람과 대화와 화합에 신경써라. 60년 손재수가 있으니 무리하지 말고 하는 일에 집중하라. 72년 운동이나 음식을 함께 할 동료나 친구가 찾아온다. 84년 직장이나 이성관계에서 선택의 고민을 하게 되며 스트레스를 받는다.	42년 소송 또는 문서와 관계된 일은 불리하니 미루거나 합의로 진행함도 좋다. 54년 할 일은 늘어나고 피곤한데 돕는 이가 없어 외롭고 능률은 저하. 66년 능력은 있어도 주변에서 나를 몰라준다. 78년 만남의 기쁨은 잠깐, 커다란 기대는 오히려 실망을 키운다. 90년 재물이 이익이 따르나 건강은 염려된다.
	37년 구설이 상대나 나를 통해 이뤄지니 언행 조심할 것. 49년 청탁 또는 뇌물을 받으려 즉시 구설수에 오르거나 신변에 이상이 생긴다. 61년 벌과금 또는 생각지 않은 재물지출이 생기니 운전 시 안전 유의. 73년 몸과 마음이 분주해 갈 데 많다. 스케줄 관리 철저. 85년 취업이나 시험에 기쁜 소식을 이득.	43년 주변 상황을 받아들이는 여유가 생긴다. 상대를 배려하며 경청해줄 것. 55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으니 답답함이 가중된다. 67년 목표를 설정, 실천하면 좋은 결과 온다. 79년 자녀에 대한 경사나 막대한 일이 해소된다. 91년 친구 또는 동료와의 관계가 좋으나 용돈은 궁하게 된다.
	38년 재물이 이익이 따르나 건강 관리 철저. 50년 자식 문제나 직원의 문제로 부부 간에 언쟁이 생기니 주의. 62년 자녀문제로 기쁜 소식을 접한다. 74년 문서 계약에서는 유리. 투기는 조심해야 하며 도박·경마는 멀리하라. 86년 이성교제가 양쪽에서 올 수 있다. 결단이 필요. 외교가 깔끔한 사람을 먼저 선택.	44년 처음과 끝이 같아야 하는 법. 변동은 자제하고 신중해야. 56년 탁월한 언변 친화력으로 인정받는다. 68년 자녀문제로 가족문제로 불화가 생긴다. 80년 어려운 시기를 대비해 저축 또는 미래 설계 필요하다고 느낀다. 92년 친구의 문제나 가정에서 불화가 조성되니 집착하지 말고 마음은 열려라.
	39년 활동성이 왕성하고 의욕이 강하나 배신수 조심. 51년 감정이 앞서면 낙상할 수 있으니 여유가 필요하고 늦지말 것. 63년 무언가 새롭게 바뀌 보려고 마음이 동요한다. 75년 귀인을 만나는 격으로 길하다. 자만이나 과욕은 후회를 부르게 된다. 87년 상대에게 믿음과 신용을 얻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	45년 경쟁자가 나를 시기하거나 배신하니 주의하라. 57년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일이 있다면 풀려나거나 계획 잘 세워라. 69년 가정에서보다 외부로 경제적 가치를 찾으려 한다. 81년 시험 자격 준비자에게는 진전이 있고 희망이 보인다. 93년 어려움 가운데 희망이 보인다. 형제일로 고민이 생긴다.
	40년 하는 일에 성과가 있으며 인정받는다. 52년 강함은 부드러운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배려와 격려가 필요한 때. 64년 차면 남친다. 욕심이 과하면 화를 면하기 어렵다. 76년 남의 일에 불필요한 호기심이나 참견은 구설로 나를 오히려 실망시키게 된다. 88년 이성교제시 불화가 생기니 언행 조심하라.	46년 금할수록 돌아가는 마음과 여유가 필요하다. 58년 활동력은 왕성해지나 지나치거나 무리하면 결과는 오히려 적아진다. 70년 상사의 추천·도움이 있거나 사업자는 금전운이 좋아진다. 82년 모임이 있으나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조기 귀가. 94년 의욕이 강하고 갈 곳이 많다. 활동 원만.
	41년 즐거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필요. 53년 마음은 부드러움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배려와 격려가 필요한 때. 65년 나의 능력이 꼭 필요한 때. 주변의 도움에 적극 임하라. 77년 신규창업이나 할 일이 생기고 업무가 늘어나 즐거우나 결과는 저조. 89년 한번 시작한 일은 마무리를 잘하는 습관이 필요.	47년 손재가 있거나 분신수가 보이나 오래 머물러야 할 경우 중요한 것은 두고 외출. 59년 하는 업무에 자기가 발생하니 중요 계약은 다음으로 연기. 71년 자식 관련 문제로 바쁘고 고민을 하게 된다. 83년 취업이나 직장문제가 지연되고, 하는 일에 하자가 발생하는 격. 95년 언행에 정해가 따르거나 낙상 조심.